

# 전북현대, 대구 잡고 5연패 성큼

갈 길 바쁜 울산, 수원과 무승부  
역전 우승 먹구름...무관 위기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을 이어가는 전북 현대가 대구FC를 잡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전북은 28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37라운드 파이널A 원정 경기에서 홍정호의 결승골과 문선민의 추가골을 앞세워 대구를 2-0으로 꺾었다.

이로써 전북은 승점 73(21승 10무 6패)을 쌓으며 선두를 유지했다.

우승을 놓고 싸우는 2위 울산 현대(승점 71·20승 11무 6패)가 이날 수원 삼성과 득점 없이 비기면서 전북과 울산의 승점 차는 2로 벌어졌다.

마지막 38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우승팀이 결정되는 가운데, K리그1 5연패를 노리는 전북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섰다.

대구는 승점 55(15승 10무 12패)로 3위를 지켰지만, 4위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54)와 승점 차는 1이 돼 순위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전반에는 전북이 볼 점유율에서 71%~29%로 앞섰고, 슈팅 개수에서도 9개(유효슛 4개)~4개(유효슛 2개)로 앞섰지만, 양 팀 모두 득점포는 잠잠했다.

전북은 전반 9분 만에 이성운을 빼고 송민규를 투입하며 선제골을 노렸는데, 대구 골키퍼 최영은의 슈퍼 세이브에 여러 차례 아쉬움을 삼켰다.

전북은 전반 44분 한교원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찬 회심의 슛이 최영은에게 또한 번 막히면서 0의 균형을 깨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전북이 후반 2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만들어냈다.

쿠니모토의 코너킥을 홍정호가 잡아 오른발로 깔끔하게 차 넣었다.

대구는 에드가와 서경주를 투입해 반격에 나섰지만, 전북은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다.

오히려 득점은 다시 전북에서 나왔다.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이 후반 41분 송민규의 패스를 받아 질주, 대구 안을 우를 제치고 페널티 아크 왼쪽 부근에서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있는 오른발 슛으로 골



28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대구FC와 전북현대 경기에서 전북 홍정호가 선제골을 성공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노컷뉴스

망을 흔들며 두 골 차 승리를 매조했다.

울산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과 0-0으로 비겨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켜졌다.

승점 71로 뒤처진 울산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반드시 대구를 잡고 전북-제주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울산은 전반 이동경의 페널티킥 실축에 골대 불운까지 겹쳐 땅을 쳤다.

전반 18분 이형용이 수원 헨리의 파울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으나, 이후 커커로 나선 이동경의 슛이 수원 골키퍼 노동건에게 막혀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전반 21분에는 이동경의 코너킥을 연결한 김기희의 헤딩슛이 수원의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말았다.

울산은 후반 39분 임종은을 윤빛가람으로 교체하며 마지막 일격을 노렸으나, 후반 추가 시간 윤빛가람의 슛이 노동건에게 안기는 등 끝내 점수를 내지 못했다. /노컷뉴스

## 전주대, 추계전국대학 레슬링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

전주대학교는 28일 제32회 추계전국대학 레슬링선수권대회 단체전 그레코로만형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레슬링부는 개인전 1·2·3위는 물론, 지도자상·최우수선수상까지 휩쓸며 대학 위상을 높였다.

먼저 김민준(운동처방학과·3년)은 그레코로만형 130kg에서 예선부터 결승까지 8:0 테크니컬 폴승으로 1위를 차지했다. 87kg급에서는 강현수(4년)가 한체대를 3:1로 꺾고 승기를 잡았다. 이어 2위에는 권정율(4년·97kg급)이, 3위에는 소원(1년·63kg급)·윤유민(2년·67kg급)·한다호(3년·72kg급)·이노준(4년·77kg급)이 이름을 올렸다.

또 대회에서 최고 기량을 보여준 김민준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레슬링부 김윤호 감독은 지도자상을 각각 거머쥐었다. 김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



은 성적을 내 기쁘다"며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잘 이끌어주는 감독님과 묵묵히 응원해주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 현장



## 화끈한 스매시 대결...초겨울 추위를 녹인다

### 2021 전북대학교 총장배 배드민턴대회 240개 클럽팀·480여명 참가 열린 경쟁 치밀한 준비 속 '방역 성공 대회' 호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억눌린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갈증을 풀어줬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주최하고 전주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전북대학교 총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전북대학교에서 240개 클럽팀 총 480여명이 참가해 종목별로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역내 배드민턴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네트를 사이에 두고 셔틀콕을 주고 받은 동호인들의 얼굴에는 행복감마저 묻어났다.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면서 코트 위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번 대회는 성공적인 '안전 대회'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별도의 개폐회식 없이 대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렀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동호인들만 대회에 출전했다. 참가자 전원은 점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동호인들은 체온 측정을 거치고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한 후 입장했다. 동호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를 벌였다. 경기 전후로 체육관 방역도 이뤄졌다.

이종국 전주시배드민턴협회장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배드민턴을 통해 다른 클럽 동호인들과 우애를 나누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펼쳐준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양용현 기자

## 2021 전주시생활체육 동호인리그 탁구대회 성황리 마무리

2021 전주시생활체육 동호인리그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주시생활체육 동호인리그 37개클럽 127개팀(1,350명)이 참여하는 전주시 탁구 동호인들의 클럽대항전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11경기로 축소되어 전주탁구센터에서 진행됐다.

그룹별 우승팀은 남자1-6부 덕진탁구클럽, 여자1-5부 해오름탁구클럽, 혼성5-6부 위너탁구클럽, 혼성회망부는 온고을탁구클럽이다.

양명철 전주시탁구협회장은 "코로나로 3월에서한번, 8월에 한번, 총 2번의 연기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잘 마무리 되



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도는 코로나 극복을 통해서 3월부터 주말리그 경기

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용현 기자

## '이강인 풀타임' 마요르카, 헤타페와 득점 없이 무승부

이강인(20)이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소속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는 7경기째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마요르카는 28일 오전(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데 손 모사에서 열린 헤타페와 2021-2022 프리메라리가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이로써 마요르카는 최근 정구리그 7경기 무승(5무

2패)를 이어가며 14위(승점 16·3승 7무 5패)에 그쳤다.

승점 1을 더한 헤타페는 19위(승점 10·2승 4무 9패)에 자리했다.

4-2-3-1 포메이션 2선에 선발로 나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줄곧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노컷뉴스

# 적십자회비,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 참여하기  
QR코드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함께하는 사람들  
**633만 명**

적십자회원 3,418,517명 참여  
봉사원 128,621명 참여  
현열자 2,613,901명 참여  
RCY 173,154명 참여

도움을 받은 사람들  
**160만 명**

국내 이재민구호 41,549명 지원  
희망풍차(4대 취약계층) 300,403명 지원  
국제 재건복구사업 약 19억 원 지원  
해외재난 긴급구호 약 8.4억 원 지원  
국민안전교육 391,610명 지원  
RCY활동 733,765명 지원  
공공의료 135,383명 진료

문의 : **063)280-5821~2**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홍보대사  
소유진

\*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겐 적십자회비와 인도주의 활동 기부금품을 통한 활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